

종합·해설

문제는 과반…문재인 ‘불안한 대세론’

■ 현장과 시각 ■

■ 민주당 대선후보 광주·전남 경선

文, 과반표 못얻어 결선투표 여지

孫, 당원표 앞서고도 모바일 뒤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광주·전남지역 순회경선도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문 후보는 과반 득표에는 실패했지만 2위와 큰 격차를 보이며 완승, 향후 경선에서도 대세론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다만, 여전히 과반 득표에는 실패, 결선투표로 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상황이다.

◇ 대세론 유지=문 후보는 전북과 경남에서보다 높은 득표율을 보이며 8연승 기록을 달렸다. 문 후보의 광주·전남 득표율은 48.46%, 이는 전북 37.54%, 경남 45.09%보다 높은 득표율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해 광주·전남 출신 후보가 없는 상황이어서 상당수 부동표가 문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부동표가 대세론에 힘쓸린 것이다.

반면 전북과 경남에서는 그 지역 출신인 정세균, 김두관 후보가 선전했기 때문에 문 후보가 광주·전남보다 낮은 득표율을 기록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 결선투표 가나=문 후보는 민주당의 뒷밭에서 승리했지만 득표율은 48.46%로 과반을 넘기지는 못했다. 누적 득표율 면에서도 46.81%로 과반 획득에 실패, 현재로선 결선투표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선은 3분의 1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수도권 선거인단 수가 많은 것이다. 때문에 비문 후보들은 이 수도권 경선을 노릴 수밖에 없다.

특히 2위를 달리는 순 후보는 수도권 출신인 만큼 수도권에서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더욱이 안철수 서울대응합 과학기술대학원장이 이날 대선전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안 원장 변수’가 민주당 경선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세론이 굳어져 가는 상황에서 1.2위 간 역전은 불가능하지만 문 후보 득표를 최대한 저지할 경우

따라서 수도권 경선이 결선투표로 가는 지에 대한 답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 측은 광주·전남 경선 승리로 대세론이 탄력을 받을 경우 수도권에서 완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비문(비문재인) 후보들은 수도권에서 선전, 결선투표를 실행시키겠다는 각오다.

◇당심과 괴리 심화=광주·전남 경선에서도 당심은 손학규 후보에게 기울었지만 모바일 표심은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다. 순 후보는 대의원이 참여하는 순회 투표에서 375표로 179표로 그친 문 후보를 200여표 차로 압도했다.

또 당원과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투표소 투표에서도 2182표로 1385표를 얻은 문 후보를 크게 앞섰다.

하지만, 순 후보는 선거인단 대다수를 차지하는 모바일 투표에서 1만표 이상 뒤지며 1위 자리를 문 후보에 내줬다.

◇반전은 없나=순회경선은 절반 이상 진행됐으나 선거인단 수를 고려하면 30만여명이 이날까지 투표를 마쳐 전체 경

■ 민주통합당 광주·전남 경선 득표 현황 (후보는 기호순)

총득표수	정세균		김두관		손학규		문재인	
	광주·전남	누계	광주·전남	누계	광주·전남	누계	광주·전남	누계
총득표수	2,435(3.48%)	11,018(15.75%)	22,610(32.31%)	33,093(48.46%)	2,435(3.48%)	11,018(15.75%)	22,610(32.31%)	33,093(48.46%)
모바일 투표	2,105	9,546	20,053	32,345	2,105	9,546	20,053	32,345
투표소 투표	200	1,257	2,182	3,385	200	1,257	2,182	3,385
누계	2,175	3,238	4,280	3,590	2,175	3,238	4,280	3,590
현장투표	130	215	375	179	130	215	375	179
누계	514	789	1,075	752	514	789	1,075	752

※ 광주·전남 총 선거인단 13만9276명 중 유효투표 6만9972명 기준(특표율 50.2%)

결선투표는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문재인은 안 원장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민주당 경선이 안 원장 프레임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표심은...

제18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통합당 광주·전남 경선이 6일 오후 광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당원과 지지자들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나영주기자 mnja@kwangju.co.kr

야우·비난 난무한 민주경선

“당심을 왜곡한 선관 위원장과 당 대표는 물러 나라.”



최권일 (정치부 기자)

축제의 장(場)이 되어야 할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장이 야우와 비난으로 얼룩졌다.

특히 민주당의 뒷밭인 광주 경선에서 당원들의 야유가 거셌다는 점에서 경선장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대선을 치르기도 전에 ‘자중지란’으로 분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탄식도 여기저기 터져나왔다.

제18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민주당 광주·전남 경선이 펼쳐진 6일 광주 서구 염주종합체육관은 각 대선 후보 지지자 2000여명이 각종 퍼포먼스와 열띤 응원전을 펼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중요 고비마다 ‘전략적’ 선택을 해온 광주·전남 경선은 14만 여명의 대규모 선거인단이 참여한데다 전국민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축제의 장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경선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기대는 이내 물거품이 됐다. 비문(非文) 후보 층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한때 경선장이 혐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해찬 당 대표를 비롯한 일부 지도부들은 이날 경선장 정문이 아닌 후문을 통해 입장했으며, 경찰과 현장 진행요원이 경선장 곳곳에 배치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도 했다.

경선이 시작되면서 야우와 비난은 더욱 강해졌다. 비문(非文) 지지자들과 일부 당원들은 후보 연설 전에 진행된 임채정 당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사말과 이해찬 대표의 인사말을 야우와 비난으로 가로막았다.

マイ크를 통해 전달되는 임 위원장과 이 대표의 인사말은 당원들이 쏟아내는 “우~” 하는 애유에 묻혔고, 일부 당원들은 “선관위원장 물러나라” “당 대표 사퇴하라”를 일제히 외치며, 당 지도부에 대한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

비문(非文) 후보들도 후보 연설을 통해 모바일 논란을 거론하며 당 지도부와 각을 세웠다. 정세균 후보는 “경선이 축제 분위기였다가도 당 지도부가 나오면 야우가 터져 나오고 소란하다”며 “당의 분란은 당심과 민심의 균형이 깨져있기 때문”이라며 모바일 투표의 불공정을 지적했다.

경선 결과가 발표된 뒤에는 더욱 소란스러웠다. 문재인 후보가 대의원 투표와 투표소 투표에서는 손학규 후보에 이어 2위를 차지했지만, 모바일 투표에서 손 후보를 1만표 이상 차이로 누르고 1위를 차지하자 장내는 고성과 욕설이 난무했고, 일부 당원들이 경선장을 빠져나가는 당 지도부 버스차량을 가로막는 등 한때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선장 안팎에서 만난 당원들은 “이제 무슨 당원이 필요 있겠나. 선거 때만 되면 모바일 투표로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면 되지”라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왔다.

모바일 투표 논란이 불식되지 않으면 ‘정권교체의 중심’을 외치며 시작된 민주당 대선 경선이 정권교체는커녕 당내 분란으로 막을 내리고 정권교체에 대한 희망을 가졌던 국민을 실망만 안겨주게 될 것이다. 지도부의 대처가 주목된다.

말 많고 탈 많은 ‘모바일 오류’ 논란

지도부, 검증은 하되 경선 일정 예정대로 진행

孫·金 “투개표 중단”…丁·文 “경선 중단 안돼”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경선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모바일투표 오류 논란이 불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손학규·김두관 후보는 지난 5일 ‘모바일투표 전화 5회 시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철저한 검증과 오류 수정시까지 투개표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전날 밤과 6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5회 시도’ 논란이 당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철저한 검증 요청에 응하지만 당규에는

경선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두 후보의 요구 중 철저한 검증은 수용하겠지만 당장 이날 예정된 광주·전남 개표 중단과 선관위원장 사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지도부가 ‘5회 시도’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발신주의를 채택한 당 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손·김 두 후보 층은 모바일투표를 신청한 유권자가 투표 참여 전화를 5번 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당규에는

5회 수신이 아니라 5회 발신을 기준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체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두 후보 층은

경선 일정을 예정대로 참석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경선룰을 둘러싼 향후 대응 방향에는 약간 다른 반응을 보였다.

손 후보 층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손 후보는 이날 광주·전남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모두가 승자가 되는 길을 포기하고 반대로 모두가 죽는 길을 선택했다”며 당 지도부를 겨냥한 뒤 4

명의 후보와 이해찬 대표가 만나는 4+1 회동을 제안했다.

정세균 후보 층은 손·김 후보의 문제제기와 지도부의 대응방식 모두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면서 경선이 중단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후보는 당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또 문 후보는 이날 연설회에서 “민주당 경선에 열심히 참여해 주신 100만 국민이 정체불명의 모바일 세력이 됐다”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PAR3 골프장, 연습장 매매

| 입 | 지 | 화순 전남대 병원 3분거리

| 규 | 모 | 전체부지면적 146,411㎡ / 사업승인면적 130.718㎡
PAR3골프장 / 실외연습장 40타석 비거리 170yd| 편의시설 | 클럽하우스 1,552.80㎡(라커룸, 샤워실, 레스토랑)
실외연습장 1,654.92㎡(탁카룸, 강의실, 골프샵)

주차공간 : 160대 주차

| 특이사항 | 감정가 82억원 / 매매가 65억
현회원 1,000명
PAR3골프장 / 실외연습장

문의처 010-9349-5555 · 062-446-5000

